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한 말과 다하지 못한 말

유희영(조충현)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방송제작자는 물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부쩍 늘고 있다. 그런 만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와 함께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고루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확대가 반드시 방송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볼 만한 방송 프로그램이 없다’고 아우성인 우리 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다큐멘터리의 확대를 ‘방송 수준의 향상’으로 보아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 안방에서 방송되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애매한 분류 기준을 허용한다면-다큐멘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간간히 논의할 것이다-대략 20여 개 정도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전체 방송 프로그램중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영국 BBC 방송과 비교 해 보아도 결코 손색없는 숫자다. 다큐멘터리의 전문화도 가속도가 붙어 자연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 탐사 다큐멘터리 등 다양해지고, 표현 양식도 저널리즘이나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덧붙임으로써 퓨전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를 비롯해 MBC의 ‘시사매거진 2580’, 시사 고발 다큐멘터리인 ‘PD수첩’과 KBS 1TV의 ‘추적 60분’은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다큐멘터리 전성시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VJ특공대’와 같은 일반인 제작 프로그램까지 가세함으로써 앞으로 다큐멘터리는 방송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내용적인 면이나 방송 장르로서 미학적 표현력의 미숙함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어쩌면 다큐멘터리에 대한 논의나 제작 기반이 열악한 우리 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의 아픈 매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부터 방영된 MBC TV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매우 시사적이며, 다큐멘터리 읽기의 적절한 텍스트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시청자의 전문성이 결여된, 그저 체감된 수준의 텍스트 읽기 이지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시청자 눈높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에는 제작자에게 하나의 참고자료로 쓰일수도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짧은 읽기를 시도해보겠다.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미덕

분류상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이후 「이제는」으로 표기)를 역사 다큐멘터리의 범주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며, 더러는 인물 다큐멘터리적 요소가 두드러진 작품도 있었다고 말하면 더욱 정확하겠다. 「이제는」이 보여준 역사 다큐멘터리의 어려운 점은 크게 두 가지다. 그 첫 번째는 사료의 부족과 함께 역사는 끊임없이 현재에 재해석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어려움은 역사 다큐멘터리의 형식의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는」은 현대사를 그 시간적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양자에서 공히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어려움은 「이제는」이 갖는 미덕을 낳음과 동시에 언젠가는 ‘다시 말해야 할’ 숙제를 남겼다.

1) 한국 현대사의 대중화와 정밀화

「이제는」이 획득한 첫 번째 미덕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평수를 넓힌데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타이틀에서 보여지듯이 「이제는」이 다룬 20여 가지 이상의 주제는 대부분 접근과 공개가 자유롭지 못했던 사안들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닌 주제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물론 주제에 따라서는 그 사건의 영향상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었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범주가 추상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주4·3항쟁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인지도는 제주도 사람들의 그것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 4·3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또 네 번째 방송되었던 ‘6·29의 진실’과 같은 경우 10여년 전의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디테일한 면까지는 아닐 터이다.

「이제는」이 해당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나 지식인, 또는 연구자들에게는 시시콜콜한 언급에 불과할지 모르나 TV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사인식의 대중화를 가져 온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닫힌 언로(言路) 구조 속에서 손바닥 만한 평수로 코끼리 다리 만지듯 현대사를 더듬어 왔던 것이며 이런 면에서 「이제는」은 대중화와 정밀화의 두 방향을 통해 한국 현대사 인식의 평수를 넓히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다.

2)역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이제는」이 두 번째로 획득한 미덕은 역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든 몇 가지 분류체계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르에 속하게 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장르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낮은 수준의 담론적 형태이지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형식적 규정과 내용적 규범에 대한 내적(제작자) 의지와 외적(시청자) 요구에 의해 어느정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진실성을 담아야 한다든지, 객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든지, 사회를 계몽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정체성과 관련된 담론들이다. 물론 다큐멘터리의 정체성과 관련한 낮은 수준의 담론에 대해 문제삼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역사 다큐멘터리 역시 고전적 의미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어느정도 정형화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이 역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은 다른 다큐멘터리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면서도 ‘사적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생존자들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과거의 사건과 사실을 재구성하는’ 역사 다큐멘터리의 전형에 충실함으로써 이후 새로운 역사 다큐멘터리의 페러다임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영국 BBC 방송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 많은 인디 다큐멘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이 접근불가의 정보원, 눈에 보이는 거짓 증언, 인터뷰 거절 등 제작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일궈 낸 성과는 이후 국내 역사 다큐멘터리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II.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무엇을 말하지 못했나

앞에서 역사 다큐멘터리로서 「이제는」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 중 하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의 성격’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이제는」이 갖는 미덕이자 동시에 한계를 드러내는 토대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제는」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는 우리 현대사의 본질을 집중 조명하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 함으로써 역사를 현재의 스승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아마 정길화 PD를 비롯한 제작진도 이 점에 주목했을런지도 모르겠다.

「이제는」을 내용을 통해 분류해 보면 제주 4·3항쟁,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동백림 사건등 이념갈등의 문제와 건전가요와 금지곡, 미문화원 방화사건, 6·29의 진실 등 종속적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코리아 게이트, 김형욱 실종 미스터리, 박정희와 핵개발 등

독립사안에 대한 것 등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언뜻 보면 서로 독립된 각각의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 현대사를 굴절시킨 가장 큰 원인인 이념의 갈등과 분단구조가 만들어 낸 현상들로 「이제는」이 제작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는」의 제작진은 역사의 본질을 각각의 작품마다 관철시키지 못하고 때때로 시선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흩어진 사료를 모으고 증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역사 다큐멘터리의 출발점이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파고들어 역사의 본질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영상 곳곳에 묻어나야 하며, 그럼으로써 시청자에게 행간 읽기를 통한 역사 해석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도들은 다큐멘터리 영상만의 독특한 미적 표현을 통해 감동을 동반해야 한다. 굳이 TV 매체가 이성보다는 감성에 더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느낌의 전달을 통해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제작자의 사전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기법을 한층 높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제는」이 위의 세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작가의 역사의식, 본질에 접근하기, 표현양식의 세 축으로 「이제는」이 다하지 못한 말을 해 보도록 하겠다.

1)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

특이하게도 연출자가 다큐멘터리 앞에 서면 우리는 그를 PD라 부르지 않고 작가라 부른다. 다른 연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도 PD가 아닌 작가로 명명됨은 아마도 다큐멘터리가 갖는 무게에 대한 경의와 함께 그에 걸맞는 책임이 남다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로 다큐멘터리 작가는 작품의 기획에서 구성, 취재, 원고, 편집, 후반작업에 이르기까지 손수 관여하며 그럼으로써 일관된 시선을 유지한다. 그 중에서도 역사 다큐멘터리나 사회고발, 시사 다큐멘터리는 작가의 시선에 따라 시청자의 눈도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작가의 시선은 더욱 중요하다. 다큐멘터리를 보는 시청자는 작가가 보여주고(영상), 말하는(나레이션) 것을 따라가며 정보의 편린들을 모아 하나의 이미지를 심는다. 다큐멘터리가 끝났을 때 작가의 시선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결국 작가의 시선은 다큐멘터리 전 과정을 통하여 어느 한 곳을 응시하고 있으며 역사 다큐멘터리에 있어서는 그것을 역사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역사 다큐멘터리 「이제는」은 작가의 역사의식의 형상화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을 제작한 연출가들의 역사의식은 몇몇 작품에서 흐트러진 시선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이제는」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은 분리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뻗어 나온 가지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밑바닥의 뿌리는 일제 강점하 시기에 생성되기 시작한 이념의 분화와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숭한 양민 학살과 조작된 간첩사건,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의 미스테리 뒤에는 서로 융화될 수 없는 사상의 대립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런 대립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고개를 들며 정적을 제압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연출가가 시종일관 천착하고 「이제는」을 통해 보여 주어야 할 역사는 이렇듯 이념의 갈등에서 기원한 대립이 분단을 고착화시켜 가는 과정과, 그 정점에서 있었던 실세와 그들의 부도덕성, 그리고 희생자들을 대중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일그러진 역사를 철저히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식이 「이제는」의 전 작품을 통해 관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객관성으로 포장된 사실 나열에 그친 작품들로 인해 관심을 갖고 일요일 밤 TV 앞에 바짝 다가앉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잘못된 정보로 굳어있는 현대사 인식을 흔들어 보지도 못하고 물러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를 들면 ‘6·29의 진실’의 경우 6·29선언의 결정이 전두환과 노태우 중 누구의 작품이었느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으로써 군사독재에 20년 넘게 맞서 온 민중의 역할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만약 기획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면 굳이 ‘이제 와서’야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실미도 특수부대’ 편에서는 실미도 훈련병들의 반란과 죽음을 ‘국가에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의 배신감’이라고 단정지음으로써 분단 상황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사적인 복수심이 만들어낸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철저히 유린당한 인권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2)이제는 더 파헤칠 수 있다

「이제는」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의 공통 견해는 ‘이제’라는 시간적 의미 보다는 ‘무엇을 말’했느냐에 주목한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방송현실에 있어서 외압 메카니즘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만큼 시간상 지연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내용 만큼은 충실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의미로 읽힌다.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에서는 이야기의 전개나 내용이 이미 13년전 간행된 해방전 후사의 인식 제3권(한길사 刊)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나타남으로써 ‘이제는’이 무엇을

새롭게 밝히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3년의 세월 뒤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TV 채널을 고정시켰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쉬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새롭게 밝힐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반란이 남로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이것은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냐 아니냐와 같은 것으로 일종의 레드 콤플렉스다-에 초점을 맞춘 이분법적 사고를 벗고 당시의 북한 동향이나 소련과 미국의 역학관계 등 사건을 구조적으로 재해석 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또 마지막 방송분인 ‘고문, 끝나지 않은 전쟁’ 편에서는 일체로부터 전송(?) 되어 온 고문과, 고문을 통해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세히 다루기는 했으나 고문을 명령한 계통상의 직접적인 책임자를 심도있게 짚어가는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궁극적 책임이 있는 당시 관련 기관의 고위직 인사들과의 인터뷰도 부족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새삼스레 다룬다’는 시청자의 불만을 가져왔다.

‘고문, 끝나지 않은 전쟁’ 이 다룬 사건들은 비교적 가까운 때의 일이라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더불어 동시대에 존재함으로써 갖는 일종의 피해의식에 젖게 한다. 그런 만큼 철저하고 깊게 파고 들어 진실을 밝힘으로써 아직도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을 죄지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동시대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 주었어야 했다. 게시판에 올라 온 어떤 네티즌의 ‘문귀동이 신발공장 차려서 잘 산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미적 표현양식의 부재

최근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다큐멘터리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담론의 수준이나마 일고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진행형인 다큐멘터리에 대해 이제 막 돌기 시작한(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얕은 수준의 담론에 근거한 정체성 부여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방송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한번의 고착화를 통해 신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방송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볼 때 그것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일년에 두 번 있는 방송개편을 보면 시간대의 재편성이거나 소재의 교체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써 방송은 진정한 자기 발전의 토양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시청자들도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을 통해 주목할 수 있는 정체성의 하나는 다큐멘터리의 표현양식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fact)과 카메라 사이의 주관주의에 대한 것이다. 주관주의적 한계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의 소재도 제작자에

의해 이미 선택된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도 객관적이기 보다는 선택되고 편집되어 가공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역사 다큐멘터리로서 「이제는」이 남기는 아쉬움은 바로 이와 같은 주관주의 탈피를 위한 실험적 시도들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제는」의 표현 수단은 영상, 나레이션, 인터뷰 세 가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항상 균등하게 분배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플롯이 없는 단조로움에 갖히게 한다. 제작여건의 한계가 있었겠지만 주제에 따라, 또는 인터뷰의 어려운 점등을 나레이션을 뺀 채 영상으로만 보여준다면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메시지의 충실한 전달은 물론 미학적 성취까지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제주4·3’이나 ‘고문, 끝나지 않은 전쟁’의 경우 베리테 양식을 빌어 작가의 개입 없이 일상 생활 속에 드러나는 지난 과거의 흔적들을 영상으로만 보여주어 시청자로 하여금 해석의 공간을 갖게 함으로써 더욱 강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결론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지난 6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한 「이제는」은 아직도 진행 중인 한국의 현대사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로서 방영 전부터 외압설 등 무성한 소문을 일으키고 지난 10월 22일 급작스런 종영을 했다. 비록 스스로의 한계를 노정시키기는 했지만 그것 자체로도 시청자로 향하는 일종의 의미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이제는」이 시청자들에게 보낸 한국 현대사의 이해는 결코 작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평의 펜 끝에 한번 언급되고 나면 너털너털 헤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한국 TV 방송의 현실 속에서 건져 낸 성과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면 「이제는」의 제작진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품과 제작진에게 보내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의 가치는 흔히 거론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피해를 대신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이 대중을 위한 공기(公器)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호소력 있는 방식이며, 우리의 방송 현실 속에서 뉴스 프로그램이 다하지 못하는 대안·비판 저널리즘의 한 영역을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다큐멘터리와 관련한 담론과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정향성을 제시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성격과 영향력을 생각해서 사회와 진실을 향한 따듯한 시선을 언제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훌륭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시청자의 눈과 가슴을 적신 「이제는」의 모든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내며, 다음에는 ‘더욱 훌륭하게’ 말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게시판에 올라운 시청자 의견 두 가지로 같음한다.

"MBC의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매회마다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 보고, 우리 후손에게는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를 유산으로 물려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매주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10/22일자로 프로그램이 종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의견을 올리라는 곳에 질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민족일보와 조용수’편을 예고할 때 흐르는 음악이 좋던데요. 그 음악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귀찮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수고하십시오.”